

## 비겁한 네가지“척”

십대, 사춘기 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많은 일들...모든게 다 용서 받을수 있는가? 그럴수없다가 현실이 주는 대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은 “사춘기니까”라며 “너그러운척, 모르는척, 믿어주는 척, 쿨한척”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내가 만나는 많은 부모님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안타까이 발을 동동구르는 부모님들이 훨씬 인간답고 부모님답다 그리고 그런자녀들은 그저 그 또래의 아이들답게 잠깐 혼란스러워하다 자신들의 자리를 잡게되는 평범한 사춘기를 지나게 된다. 자신의 딸이 아들이 틴에이져 답지 못한 행동과 삶을 살고있는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 앞에서의 네가지 “척”으로 비겁하게 타협해버리고 있는 부모들로 인해 그 자녀는 물론 그자녀로 인해 수많은 다른 청소년들이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것을 어떻게 그 부모가 외면하고 있는지 끔찍함이 느껴진다. 자식은 부모의 책임이다. 자녀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로서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아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가정과 가족의 관계, 분위기들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문제점이나 원인을 함께 찾아내고 그리고 개선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자녀가 돌이키고 시도해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족전체가 해야하는 시작이 필요하다. 자녀의 드러나는 행동만을 지적하고 꾸짖는것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원인이 아빠일수도, 엄마일수도 부부의 관계일수도, 경제적 이유일수도 그리고 자녀자신의 숨겨진 죄의식, 갈등, 상처, 소외감, 수치심.내성적인성격, 절제되지 못하는 감정등 수십가지의원인들이 그속에 있는것이다. 유스 앤드 웨밀리 포커스에 들어오는 케이스들중에 심각성을 보면 무조건 자녀를 닥달하고 강압적으로 꾸짖는 방법으로만 들이대므로 더더욱 자녀가 극단적인 타락으로 가게끔하는 무지한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돈쓰쓰미, 밤늦게 돌아다니는 잘못된 행동, 술이나 마약까지도 하고있을것 이라는것을 은연중에 알면서도 가장 비겁하게 타협하는 앞에서의 4 가지 “척”으로 인해 자녀의 이중생활을 그냥 눈감아주는것으로 인해 그 주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일들을

빛어내는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있음에도 정작 그부모는 모른다는것이다. 아니 모르고 싶은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상급생이 신입생을 괴롭히는 신입생 신고식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수많은 일들은 끔찍하다 . 그런데 분명한것은 그것이 갱들의 지시아래 , 그리고 특별한 목적아래 자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갱이 직접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뒤에 가리워있고 상급생들을 지도명령함으로 이루어진다. 여학생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상의를 벗기고 가장 수치심을 느끼게끔 여성의 중요한 부위들을 고통스럽게 고문하는가 하면 멍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무섭게 때려주기도 하며, 담배를 뜯어놓고 그것을 그냥 먹으라는 고통스러운 명령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 당한 신입생들은 혼이나갈정도로 겁에 질린다.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말도 하지 못하거나 ,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신고하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벌벌떨고 학교를 가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아이들이 바로 위의 네가지 “척”의 부모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라는것이다. 나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자녀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협력을 받아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악으로 떨어뜨리는 악습관의 고리를 벗어날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으며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야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늘지고 피멍이 들어가는것이다. 그리고 “척”으로 타협하는 비겁한 부모의 모습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는 부모님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이젠 충분히 위기의식을 외면해서 보글보글 김이 올라오는 서서히 달구어지는 용기속에 앉아있다 익어죽는 개구리의 미련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젠 깨어야할 때인것이다.